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티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데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골든스텝 꽃집**  
 결혼식꽃 전문  
 각종 행사 및 기념일  
 서재욱(토마스), 서애경(데레사)  
 770-992-1797

**회계법인태평양** (구 시원회계법인)  
**정시욱 루벤 CPA**  
 770-817-9600  
 3175 Satellite Blvd., Suite 325, Duluth, GA 30096

**음악과 테니스**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SMILE 1 DENTAL GROUP**  
 김세희 소화데레사  
 김상윤 요셉  
**스마일원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 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곳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김 770-634-5646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조앤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아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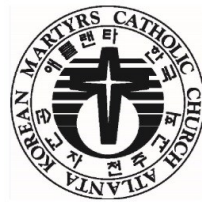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이크리스티나 보험 금융**  
 은퇴/연금/교육/생명보험  
**678-665-3882**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만천홍  
 T. 770.454.5640  
 592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GIFTS GOLD-CROSSES-REPAIRS**  
**성물점**  
 • 십자가, 선상 • 금, 은, 주문제작  
 • 성화, 묵주, 책 • 신발수선  
 • 리-서츠 프린팅  
 Suwanee Wal-mart 내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com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 2047호 2020년 6월 14일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발행인: 이영석 세례자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영어)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 (구역미사)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월: 휴무  
 화 ~ 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5시
- † 본당신부  
 이영석 세례자 요한  
 Johann Young-seog Lee, S. J.  
 20seog@hanmail.net
- † 사목회장  
 왕일모 미카엘  
 Michael Il Mo Wang  
 352-359-2151  
 choishair@gmail.com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요한 6,51-58 >

성 가	입당: 169	봉헌: 210	성체: 168	파견: 62
제 1 독서	신명기 8,2-3.14-16 <하느님께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주셨다.>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김송옥(데레사)  
민병숙(라파엘라)  
박덕자(빅토리아)  
박정자(데레사)  
박제봉(베드로)  
유옥희(모니카)  
이금숙(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이창욱(크리스티나)  
임영숙(레지나)  
조경희(글라라)  
채준현(아오스딩)  
최순례 (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0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을 예정인 분들을 위해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구역분과 남현석 770-827-9987  
성모회 서처영 770-723-0380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예비신자 교리반 나상숙 678-933-7313

선교분과

이영숙 770-625-0787

레지오 마리아에 박순기 678-793-5881  
성령기도회 김성애 678-779-1387  
울뜨레야 조경희 404-610-8086  
M.E. 손영덕 678-896-1837  
C.L.C. 김옥경 770-912-8282

37. 정치 공동체와 올바른 민주주의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세상의 빛

◆ 극단과 진영을 극복해 대화와 상생으로

- 헬레나 : 신부님, 요즘 보면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야기만 많이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가 더 심해요.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고나 할까요?

- 이 신부 : 아, 그렇군요.

정의와 도덕이 결합돼야 할 민주주의

가톨릭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정치가 구현되길 고대합니다. (「백주년」 46항) 또한 올바른 민주주의는 사회교리의 원리 중 하나로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이 지켜질 때 실현되는 것이라 합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407항) 그리고 보편적 진리와 객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윤리 상대주의나 회의적 상대주의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보편적 진리가 없는 민주주의는 정세나 상황에 따라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과 정당의 정치적 목적과 기득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편적 진리란 정의와 공정이며 그 중에서도 생명과 인간 존중, 섬김과 봉사입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383항)

극단의 진영 논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그 개인과 밀접한 사회도 식별과 지혜 그리고 이것이 소통되는 대화의 자리 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그 자리에 극단주의와 진영논리가 자리잡았습니다.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폐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심지어 대화마저 거부하고 반지성적 배타주의로 일관하는 극단적 정치주의도 횡행합니다. 이들에게 자신과 견해가 다른 세력은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이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하는 이는 배신자라 여깁니다. 이것이 과연 건강하고 올바른 것입니까? 사회에 만연한 오럴 해저드(Oral Hazard)와 막말, 가짜뉴스, 뉴스 편식으로 인한 '확증편향'은 그러한 진영논리와 극단적 정치를 더 심화합니다. 그런 분열과 선동도 문제지만 사안의 본질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대화와 존중, 소통과 경청의 가치 회복 절실

최근 한 공직자의 임명을 두고 온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관련 언론보도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 역시 진영논리와 극단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큼니다. 사안에 대한 도덕적 실망과 함께 노인과 청년, 고용과 인권 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긴급한 민생현안이 도외시됐기에 상실감이 더 큼니다. 그러나 그 사안을 놓고 여전히 적대감과 대립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결과 봉합은 요원해 보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생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것도 급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나의 목소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친교와 관계, 상생과 협치, 올바른 정치와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대화와 존중은 한 개인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품위이자 덕입니다. 동시에 참으로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자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며 정치의 근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대화와 존중, 소통과 경청의 문화를 시급히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단지 일련의 규범들을 형식적으로 준수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 존중, 정치 생활의 목적이며 통치 기준인 공동선에 대한 투신과 같이 민주주의 발전에 영감을 주는 가치들을 확신 있게 수용한 열매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407항)

[가톨릭신문, 2019년 9월 22일,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대건한국학교 2020-2021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 모집 대상 :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 기간 : 2020년 8월8일~12월5일 (16주간)
- 수업 시간 :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 특활과목 : 서예/한국화, 미술, 한국무용,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내행사 :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 등록일자 : 4/25~5/2 (추가등록:5/2~8/8)
- 등록금 :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간식, 교지\$10포함)
- 등록장소 :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방법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Hai Sun  
YoGa 무료 교실  
매주 화요일 7:30 pm  
소성당으로 오세요...  
470-599-7543

SO GOOD (파티, 웨딩드레스 전문점)



Duluth 매장: 678.474.7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www.sogoodbridal.com  
www.sogoodbb.com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입양·클로징·상법·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오즈냉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30~오후 1:00  
(예약 주문/상담가능)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최고의 보험회사와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 병 들었을 때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보험  
✓ 확정이자로 10년째 원금의 2배 보장  
최미영 헬레나 404-918-0424

성경 통독 계획표 2020년 6월

1.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2. 성경통독: 날마다 제시된 성경구절을 읽습니다.
3. 마침기도: 그날 제시된 시편을 음미하면서 기도하듯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나에게 호소하시는 하느님 말씀 한 구절을 수첩에 기록하고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성경	판관	판관	판관	판관	판관	판관	1사무	1사무	1사무	1사무	1사무	1사무	1사무	1사무	1사무	
장	1-3	4-6	7-9	10-14	15-18	19-21	1-3	4-7	8-10	11-13	14-15	16-18	19-21	22-24	25-27	
시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확인																
날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성경	1사무	2사무	2사무	2사무	2사무	2사무	2사무	2사무	1열왕	1열왕	1열왕	1열왕	1열왕	1열왕	1열왕	
장	28-31	1-3	4-7	8-12	13-15	16-18	19-21	22-24	1-3	4-7	8-10	11-13	14-16	17-19	20-22	
시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확인																



# 2020년 AA 기금 납부 현황 (6월 7일 현재)

교구 할당액: \$61,500    누계 약정액: \$28,255

금주 납부액: \$460    누계 납부액: \$28,866    달성율: 46.9%

## 2020 AA 기금 금주납부자 (총 12명)

강규상 김상순 김영철 김원봉 남현석 손철영 이동춘 이수진 이종길 최인영 최한수 한성인

### <본당 미사 재개>

그동안 Covid-19사태로 인해 봉헌되지 못한 본당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가 재개 되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이미 공지해 드린 미사 참석 시 지켜야 할 유의 사항들을 잘 주지하시고 미사 참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례 미사>

6월 7일(일) 오후 1시 30분에 故 김계환(안토니오)님의 장례 미사가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주임 신부님 집전으로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 <예비 신자 세례식>

6월 6일(토) 특전 미사 중에 예비신자 6명의 세례식이 2차로 있었습니다. 새 영세자들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의 자리다.

< 요한 6,51-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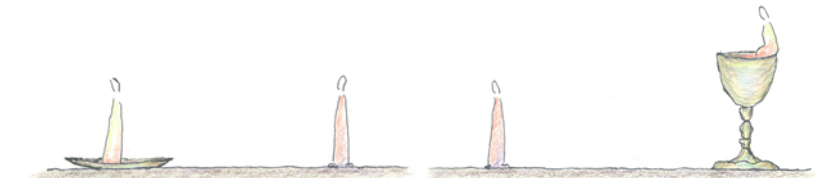
배영길 베드로 신부

너의 자리다.  
올라오렴.

아니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요.

그렇게,  
오늘도 님 가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 [삶의 에너지]

갑자기 성당에 나가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심드렁해졌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성당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몇 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주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것처럼 똑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미사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들. 익숙해진 기도문들. 새로울 것 없는 성가곡들. 얽은 만남속에 어느 편 이름도 잘 생각 안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내가 성당에 왜 매주 나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일까? 성령님이 성당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성당에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성당을 왜 주일마다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성당에 발을 들여 놓고, 처음에는 세례의 들뜬 마음과 많은 새로운 것들과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왜 성당에 나가는데에 대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특히 수녀님과 신부님과 주위 동료들이 베푸는 사랑은 내가 마땅히 성당에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당은 지향점이 되기에 충분했고, 새로운 것들로 넘쳐났고, 그 안에서 사랑받는 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졌을 무렵, 갑자기 피로함이



### 오늘 복음 산책

내 삶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요한 6,51-58 >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나이 50 전후에 겪는 중년의 위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력감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는 자조감부터, 성령대회 같은 외부적 자극을 통한 내공 충전까지 생각해 보았으나 뻔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성당을 왜 나가느냐?'라는 질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앙이 무엇이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등 떠승고 배부르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말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상의 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무력해져가는 영과 초체해져가는 육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내 삶은 참된 양식'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양식. 그것에 대해서 너무 형이상학

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의 '양식'으로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싶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매일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사막에서 다닐 때 하느님이 만나 양식으로 인도했듯이, 나 또한 예수님의 성찬양식으로 영의 굶주림을 달래는 것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성체성혈의 양식에 대한 생각이 바뀐 후,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권태롭거나 시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 내 삶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고자, 미사를 통해 그런 은총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체성혈의 직접적 기회가 줄어들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위험이 사라져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성체성혈로 삶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도록 해주시길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성찰**  
어느 때 내 안에 힘이 충만했는지 기억해보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찰해 봅시다.



우리들의 정성 (2020년 6월 7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119명	
특전 미사	46명	오전 8시 30분	35명
오전 10시 30분	38명	영어 미사	-명
성물방	\$ 283.00	감사헌금	\$ -
교무금	\$ 9,737.50	주일헌금	\$ 3,840.00
온라인 교무금	\$ 1,900.00	온라인 주일헌금	\$ 252.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20년 6월 7일)

길영애 (5)	서영규 (5~6)	이세철 (1~6)
김기범 (3~7)	서재욱 (6)	이수진 (6)
김도형 (1~5)	소계섭 (4~6)	이종길 (6)
김상순 (6)	손영덕 (1~6)	장영춘 (5)
김영철 (6)	송용덕 (6)	정진호 (5~8)
김영화 (5)	신기현 (4~6)	정성두 (6~12)
김영화 (5)	안근순 (4~6)	지승남 (4~5)
김원봉 (6)	윤기태 (2~5)	최인영 (6)
남상우 (5)	이국진 (6)	최한수 (6)
남현석 (5)	이길영 (4)	
박재영 (3~5)	이동춘 (6)	
방남규 (5~6)	이복화 (4~6)	
서상희 (6)	이봉조 (6)	

금주 COVID-19 Fund 기부자 명단

김기범	송용덕	*감사합니다.
-----	-----	---------

미사 위생 지킴이

	6/14	6/14	6/16	6/17	6/18	6/19	6/21	6/21	6/23	6/24	6/25	6/26
	주일 8: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주일 8:30	주일 10:30	화 12:00	수 7:30	목 7:30	금 12:00
체온측정 1 (정)	왕일모	왕일모	김성애	김유니스	김유니스	김유니스	왕일모	왕일모	김성애	김유니스	김유니스	김유니스
체온측정 2 (부)	이상용	이상용	-	-	-	-	이상용	이상용	-	-	-	-
안내/방역 1 (정)	정지연	남현석	이정란	이혜원	오영숙	이영숙	정지연	남현석	이정란	박은정	오영숙	이영숙
안내/방역 2 (부)	이영숙	오영숙	-	-	-	-	이영숙	이흥철	-	-	-	-
안내/방역 3 (부)	-	이흥철	-	-	-	-	-	김진용	-	-	-	-
안내/방역 4 (부)	-	박재석	-	-	-	-	-	이애자	-	-	-	-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6/14 (일) 오전 8:30	이경환	서상희 서정원	-
6/14 (일) 오전 10:30	박줄리	이국진 이정란	-
6/21 (일) 오전 8:30	서정원	남상우 남수진	-
6/21 (일) 오전 10:30	박미셀	박재현 박줄리	-

장학금 지원

우리 본당은 향후 2년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사회 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수녀님 한분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총액은 1만 달러입니다.

수녀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방인 수도회인 St. Therese Sisters in Tanzania 소속으로 이름은 Sr. Henrietha Marchestas입니다.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역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수녀님을 위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의 많은 사제와 수녀님이 재학 중이지만, 그들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재정적인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을 전할 수 있다면, 보편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돕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 2020년

일시: 1월 1일~12월 31일  
매달 주보에 기재되는 계획표에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읽으신 분들의 확인표를 송년 미사 때 봉헌합니다.

▶주보 7면 하단에 게재되어 있는 성경 통독 계획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표는 매달 첫째와 둘째주일에 친교실에서 걸겠습니다.

문의: 이숙자 (678-665-3882)

교구 및 기타 소식

◆온라인 봉헌 안내

1. 온라인 봉헌을 해 주실 때는 이름과 신자번호, 봉헌 내역 (교무금, 주일헌금, AA 기금, COVID-19 Fund 등) 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생미사, 연형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제 성화를 위한 Tridum(3일 기도)  
예수성심 대축일을 맞이하여 사제들이 거룩하신 예수성심의 무한한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6월 17일(수) 사제들이 사랑과 겸손으로 성덕에 진보하기를(마르10,43-45)
- 6월 18일(목) 사제들이 독신, 순명, 청빈의 서원을 온전히 봉헌하기를(1코린7,32-34)
- 6월 19일(금)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양떼를 사랑으로 인도하기를(요한10,14-16)

기도순서

1. 성호경 2. 교황이나 주교를 위한 기도 3. 사제들을 위한 기도 4. 짧은 묵상 5. 마침기도 (주모경)

보고싶은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미사가 오는 5월 30일 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소중하게 재개되는 미사를 지속적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교우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

- 2020년 5월 30일(토) 토요일 특전미사를 시작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합니다.
- 주일 아침(8:30), 주일 교중(10:30) 및 평일미사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지키며 봉헌합니다.
- 주일 영어미사(12:15)와 성모신심미사(첫째주 토요일)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 주일 교중미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됩니다.
- 주일미사 참례 관편은 6월 28일 주일까지 지속됩니다.

본당내/미사중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은 성전 입구에서 체온측정을 합니다.
- 미사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미착용시 성당출입불가)
- 성전 내에서는 지정된 좌석에 6ft의 거리를 두고 앉으셔야 합니다. (가족끼리는 나란히 앉아도 됩니다.)
- 주님의 기도는 합창으로, 평화의 인사는 목례로 실시하며, 영성체는 손으로만 제공됩니다.
- 대성전 내에는 100명까지 선착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도착하신 분들은 친교실과 소성당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합니다.
- 미사를 제외한 본당내 행사와 모임은 계속 중단합니다.
- 노인 아파트 버스 운행은 당분간 중지 됩니다.
- 고해성사는 사제 집무실에서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미사를 안전하게 봉헌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과 규제가 요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봉사자들의 안내에 꼭 따라 주셔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22일  
에틀렌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영석 세례자 요한 S.J.

“코로나19시기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슬기로운 본당생활

집을 떠나기 전

미사를위한품과마음의준비를확인합니다.

- 최근(2주이내) 코로나 바이러스확진자 또는의심환자와 접촉하였거나,
- 발열, 기침, 근육통,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 심리적으로 미사참여가 불안한 경우...

나의 건강을 위한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 본당에는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물품과 서비스를 없앴습니다.
- 마스크, 장갑, 매일미사책, 필기도구, 손소독제 등을 미리 미리 챙깁니다.

일찍 출발 합니다.

- 본당 입장을 위해 체온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미사 시작 15분전까지 본당에 착석하실 수 있도록 서둘러 출발합니다.

성당에 도착하면

마스크는 상대를 위한 배려 입니다.

- 본당내에서는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체온계로 체온을 확인해야 합니다. (99.6도 이상이면 즉시 귀가 하셔야 합니다.)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 본당내에서는 일체의 공유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커피, 식수, 성가책, 필기도구 등)
- 악수와 포옹 등 교우간의 신체접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본당내에서는 지정된 통로와 동선을 따라 이동하셔야 합니다. (일방통행 및 지정 출입구)
- 성전내에는 안내봉사자의 인도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6ft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합니다.
- 미사중에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여 신체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 본당내에는 일체의 공공물품 비치를 중지합니다. (성가책, 기도책 등)
- 미사중에도 출입문을 열어서, 손잡이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 미사중에도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성체를 모실 때에는 장갑을 벗어 주세요)

질서있는 이동

- 미사가 끝나면,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질서있게 성전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 미사후에는 전체 공간을 약품으로 소독합니다.

에틀렌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제24대 사목회